

## 【 해외금융 뉴스: 중국 】

### 중국 생보업계, 상반기 장기 보장상품 판매 주력

□ 올해 상반기 다수의 중국 생명보험회사들이 주력 상품 전환 및 판매 전략 변화 등을 통한 업무 조정에 적극 나선 것으로 나타남.

- 상반기 생명보험 주력상품은 무배당 투자형에서 유배당 보장형으로, 납입방법은 일시납에서 분할납으로, 보험기간은 단기에서 장기로, 보험모집 방식은 방카슈랑스에서 보험모집인 위주로 변모한 것으로 파악됨.
- 생명보험 업계의 전략 변화가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주력상품 부문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유배당 보장형 보험상품이 주력 상품으로 자리잡았으며, 특히 상하이 생명보험시장의 경우 유배당 상품이 전년동기대비 98.6% 급증(수입보험료 기준 162.7억 위안)하여 전체 생명보험시장에서 66%까지 비중이 확대됨.
- 또한 생명보험회사들이 방카슈랑스 수수료 지원을 축소하고 보험모집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결과 올해 상반기 보험모집인을 통해 거수한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4.5%, 전체 수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4.3% 증가하였고, 보험기간에 있어서도 신계약 중 계약 기간이 5~10년인 계약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15.4% 증가했으며, 납입방법 역시 분할납 비중이 전년동기대비 29.2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
□ 이러한 생명보험시장 변화의 배경에는 생명보험회사들이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 지난해 주력 상품이었던 투자형 보험상품 판매를 대폭 축소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.

- 책임준비금 여력이 불충분한 다수의 중소 생명보험회사들이 무리하게 위험도가 높은 투자형 상품을 개발해 판매함으로써 지급준비금 부족 현상을 초래함.
- 또한 향후 투자수익율이 시장금리보다도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생명보험회사들로 하여금 투자형 보험상품 판매를 지양하고 대신 보장형 상품 판매에 주력하도록 만들고 있음.

(증권시보, 7/27)